

2014.5.12. 월요일. 어젯밤부터 비가 오다, 맑은날

학기 시작 직전 한국에 도착해, 정신없이 학기가 시작됐다.
시간은 정신없이 달려 어느덧 학기는 약 한 달을 남겨놓고 있다.
모든 것이 정신이 없고 바쁘다.
할 건 너무 많고 마음은 초조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리가 안된다.
매일매일 다른 팀플이 나를 기다리고, 벌써부터 기말고사가 걱정이고,
사고싶은 건 많고, 돈은 없고,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, 미래는 불확실하고, 외롭고.
너무 정신이 없다.
나도 꼴에 24살이라고, 생각이 많아진다.
이번학기는 뭔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위태위태 하지만
1년만에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, 느끼는 게 많다.
졸업이라는 글자가 가져다주는 압박감 역시
나에게는 먼 일인줄로만 알았는데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.

어떻게든 이번학기를 끝내면 어떤 선택이든 하게 될까?
내년 이맘, 내가 회사에 취직한 모습도 상상이 안되고
캐나다로 갈 결심을 했다고 해도 학기는 시작하지도 않았을테니
캐나다에 있는 것도 아닐테고
그렇다고 25에 빈둥빈둥거리는 내 모습은 아예 상상하기가 싫다.
요즘은, 사람이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른다.

아무튼 요는, 정신이 없다.....ㅍㅍㅍ
기말고사까지 망칠 순 없다는 생각으로 결제한 회계 강의는 아직 45강이나 남았고
당장 이번주에 해야 할 팀플은 3개나 있고,
그와중에 내일 민기오빠랑 윤주언니는 부산으로 놀러오고 24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. 기말고사는 한달 앞으로 다가왔고.....
기말고사 후 잠깐의 숨쉴 틈을 뒤로 하고 무슨정신으로 모든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.